

## 元代 소수민족 散曲에 나타난 隱逸思想 고찰\*

김영미\*\*

### 목 차

1. 들어가며
2. 元代 소수민족 작가의 출현과 散曲 창작
3. 元代 隱逸思想의 형성 배경
4. 『全元散曲』에 나타난 元代 소수민족의 隱逸思想
  - 1) 저항으로서의 隱逸:功名에 대한 혐오
  - 2) 동경으로서의 隱逸: 이상적 삶의 실천
5. 나가며

### 국문초록

元代는 과거제의 폐지와 부활 등 불안정한 국정 운영으로 한족 문인들은 소수를 제외하고 정치적 입지를 상실하고 관직에 진출할 기회를 얻지 못하거나 대부분 한직에 머물렀다. 따라서 정치적 이상을 위해서 隱逸을 선택하고 자연에 순응하며 때를 기다리거나 懷才不遇한 답답함을 노래했다.

반면에 몽골인과 色目人 등 소수민족은 한족에 비해 높은 관직에 있으면서도 隱逸을 노래하고 실천하고자 했다. 不忽木, 貫雲石, 薛昂夫 등 소수민족 散曲 작가는 자발적으로 儒學을 받아들이고 중원의 문화를 흡수하는 동시에 자기민족의 우수한 문화를 중원에 전파했으며, 隱逸思想을 표출했다. 이들의 隱逸은 관료생활의 피로감과功名에 대한 혐오 등 정치와 관직에 대한 저항과 도피이면서 이상적 삶의 실천과 동경으로서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 이 논문은 2023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3S1A5A8081703)

\*\*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교육학부(중국어교육전공) 초빙교수

키워드 : 元代, 散曲, 소수민족, 隱逸思想, 저항, 동경

## 1. 들어가며

몽골제국을 수립하고 광활한 영토를 확장하며 북중국을 통일한 元나라는 기존의 중원 문화와의 충돌과 대립을 겪기도 했지만, 元代에는 전례 없는 교류와 융합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元代의 문단에도 많은 소수민족 작가들이 출현했다. 이들은 散曲 창작에도 뛰어난 실력을 발휘하며 문단에서 자신들만의 독특한 실적을 쌓아서 중국문학의 발전에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

元代는 과거제의 폐지와 부활 등 불안정한 국정 운영으로 한족 문인들은 정치적 입지를 상실하고 관직에 진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따라서 元代의 한족 문인들의 散曲에는 隱逸을 노래한 작품이 많이 보인다. 반면에 몽골인과 色目人(西域人)은 지배계층으로 한족에 비해 높은 관직에 있으면서도 隱逸을 노래하고 사회를 비판했다. 散曲이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 避世, 玩世, 嘆世를 노래한 장르이기도 했지만, 隱逸思想의 표출은 거침없고 솔직한 유목 민족의 문화적 특징과 작가 개인의 공명에 대한 인식, 당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등이 작품 안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몽골인과 西域人들의 漢化는 강제적인 동화가 아니라 문화적 교류와 상호작용을 통한 민족 융합 과정으로써 문학, 예술 등에서 다양한 성과를 이룬 것이기 때문이다.

隱逸思想은 元代 散曲 작가의 핵심 사상 가운데 하나였다.<sup>1)</sup> 『全元散曲』에 수록된 3,853수의 小令과 457수의 套數 가운데 隱逸과 관련된 작품은 小令 995여 수와 套數 52수이다.<sup>2)</sup> 212명의 散曲 작가 가운데 78명이 隱逸을 노래했으니 전체 散曲 작가의 1/3에 해당된다. 이 가운데 隱逸을 노래한 소수민족 작가는 18여 명이고, 관련 작품으로는 50여 수가 해당된다.

1) 王忠林, 『元代散曲論叢』, 臺北: 文津出版社, 2005, 33쪽.

2) 柴琮, 「元散曲隱逸作品代表作家研究」, 華中師範大學 석사학위논문, 2009, 3쪽.

중국에서 元代 소수민족 散曲에 관한 연구는 작가집단의 형성, 散曲 문헌의 정리, 연구내용의 확장, 연구패러다임의 변이 등에서 진행되었고,<sup>3)</sup> 隱逸思想에 관한 연구는 소수민족 작가인 貫雲石, 薛昂夫가 부분적으로 포함되었거나 개별 작가 연구에서 간략하게 언급되었다.<sup>4)</sup> 국내에서는 元 散曲에 관한 연구가 꾸준히 이어지고는 있으나 그 수량이 많지는 않다. 더구나 소수민족 散曲 작가 및 그들의 작품에 관한 연구는 학위논문 1편과 2편의 학술 논문뿐이고, 그마저도 모두 貫雲石에 관한 것이다.<sup>5)</sup> 이에 본고의 연구를 통해서 元 散曲에 대한 연구 범위 및 내용을 확장하고, 나아가 元 散曲에 팽배한 隱逸思想이 소수민족의 散曲에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고찰하도록 한다.

## 2. 元代 소수민족 작가의 출현과 散曲 창작

『全元散曲』에 수록된 散曲을 창작한 소수민족 작가로는 18여명이 있고, 작품으로는 250여 수가 있다. 몽골인인 楊訥(생졸년 미상, 小令 2수, 套數 1수), 伯顏(1236~1295, 小令 1수), 阿魯威(생졸년 미상, 小令 19수), 童童(생졸년 미상, 套數 2수), 孛羅御史(생졸년 미상, 套數 1수), 色目人(西域人) 작가로는 不忽木(1255~1300, 套數 1수), 大食惟寅(생졸년 미상, 小令 1수), 阿里耀卿(생졸년 미상, 小令 1수), 阿里西瑛(생졸년 미상, 小令 4수), 蘭楚芳(생졸년 미상, 小令 9수, 套數 3수), 貫雲石(1286~1324, 小令 79수, 套數 8수), 薛昂夫(약1273~1350년 후, 小令 65수, 套數 3수), 薩都刺(1280?~1346?, 套數 1수),

3) 羅海燕, 「新中國成立以來的元代少數民族散曲研究」, 『大連民族大學學報』第6期, 2016, 561~592쪽 참고.

4) 洪柏昭, 「驥驂千裏齊足并馳-貫雲石、薛昂夫散曲之比較研究」, 『學術研究』2期, 1987; 門巖, 「論元代維吾爾族曲家薛昂夫的散曲」, 『中央民族學院學報』제5기, 1991; 溫斌, 「志心兩離不忽木, 西域儒行第一人-不忽木其人其曲」, 『中國文化研究』, 2013

5) 노상균, 「貫雲石散曲研究」,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0; 노상균, 「貫雲石散曲之格律及作法小考」, 『비교문학연구』 제8집, 2004; 노상균, 「酸醴樂府比較研究」, 『세계문학비교연구』 제21집, 2007

玉元鼎(생졸년 미상, 小令 7수, 套數 2수), 孟昉(생졸년 미상, 小令 13수), 奧敦周卿(생졸년 미상, 小令 2수, 套數 1수), 蒲察善長(생졸년 미상, 套數 1수), 全普庵撒里(?~1358, 小令 殘句) 등이 있다. 이들의 散曲 가운데 隱逸思想을 표현한 작품은 대략 50여수 이다. 貫雲石과 薛昂夫의 작품이 소수민족 散曲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특히 貫雲石, 薩都刺, 阿魯威, 薛昂夫가 쓴 詩詞나 散曲은 그 학문적 깊이가 매우 뛰어나다.<sup>6)</sup>

散曲 작가들의 생졸년은 자세하게 알 수 없거나 작품의 수량이 차이가 있고, 散曲集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자신들의 작품을 보존하거나 수집하는데 관심을 두지 않았고, 창작하는 대로 버리는 상황이 매우 일반적인데다가 俗 문학을 경시하는 전통적인 관념 탓에 散曲 역시 거의 수집할 수 없었기 때문에”<sup>7)</sup> 작품 대부분이 산실되었다.

몽골인은 초원의 유목민으로 士人 집단, 즉 지식인층의 출현이 비교적 늦었는데, 나라를 세운 전후로 몽골은 서역문화의 영향을 크게 받은 반면에 중원문화의 영향력은 비교적 적게 받았기 때문이다. 大元에서는 西域人을 일괄해서 色目人이라 부른다. 여러 色目人의 약칭으로, 서방 계통에 해당하는 다양한 사람들이라는 의미다.<sup>8)</sup> 즉, 色目人은 하나의 민족이 아니라 元 조정에서 통치의 필요성 때문에 설정한 하나의 집단으로, 陶宗儀의 『輟耕錄』에 의하면 31종으로 구분된다.<sup>9)</sup> 문화적 관점에서 이들을 구분하면 첫 번째는 漢文化의 영향을 받은 탕구트Tangut唐兀(唐古라고도 하며 西夏의 유민을 말함), 옹구트Önggut汪古 족으로 한문을 아는 지식인층이 존재했던 종족이다. 두 번째는 漢文化의 영향력이 크지는 않으나 자체적으로 높은 문화 수준과 전통 지식인층이 존재하는 종족으로, 위구르Uyghur畏兀兒, 토번吐蕃, 회회回回, 에르케운erke'un也里可溫이 해당된다. 세 번째는 중원과 멀리 떨어져 있는 캅글르

6) 袁行霈 主編, 『中國文學史』(第3卷), 北京: 高等教育出版社, 2010, 188쪽.

7) 張迎勝, 『元代回族文學家』, 北京: 人民出版社, 2004, 266쪽.

8) 오타기 마쓰오, 윤은숙·임대희, 『중국의 역사 대원제국』, 서울: 해안, 2013, 202쪽.

9) “色目三十一種, 哈刺魯, 欽察, 唐兀…….” [元] 陶宗儀 撰, 李夢生 校點, 『南村輟耕錄』 권1, 「氏族」,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12, 11쪽.

Qangli康里, 킵차크Kipchak欽察, 아스Ās阿速 부족으로 이들 가운데는 漢文을 사용할 수 있는 지식인층이 거의 없다.<sup>10)</sup>

몽골인과 色目人 등 소수민족은 자발적으로 儒學을 받아들이고 중원의 문화를 흡수하는 동시에 자기민족의 우수한 문화를 중원에 전파하여 각 민족 간의 사상 및 문화의 교류와 융합을 추진했다. 대표적인 유학자로서 不忽木<sup>11)</sup>은 평생 儒家 전통의 정치적 가치 추구하고 인생 수행을 이상적으로 실천하여 西域에서 유학자로서 품행이 가장 뛰어난 자가 될 수 있었다. 그는 학교를 부흥시키고 儒學을 학습하며 儒學에 조예가 깊은 신하를 등용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儒家 문화 이외에도 몽골 초원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다양한 문화현상을 표현했으니,<sup>12)</sup> 이는 “분명한 시대적 특징을 지닌 문화의 발현”<sup>13)</sup>이라고 할 수 있다.

몽골인과 色目人 지식인의 주요 교류 대상은 같은 종족의 중하층 계층이 아니라 한족 사대부들이었다. 한족 왕조시대 사대부 사이의 사회 연결망이 주로 동향사람, 혼인으로 맺어진 친척, 사제관계, 과거의 시험관과 합격생 및 동년배, 동료 등의 관계를 기반으로 형성되었으며, 元代 여러 종족 지식인의 교류 네트워크 역시 대체로 비슷하다.<sup>14)</sup>

몽골인인 阿魯威<sup>15)</sup>는 뛰어난 한문 실력으로 『世祖聖訓』, 『資治通鑑』 등

10) 蕭啓慶, 『元代的族群文化與科學』, 新北: 聯經, 2020, 58쪽.

11) 字는 用臣, 號는 靜得으로 康里部사람이다. 친성적으로 총명하고 재주가 있어서 元 世祖의 총애를 받았다. 역대로 吏部, 工部, 刑部尙書를 역임했으며, 병을 핑계로 관직에서 물러났다가, 다시 平章政事등 많은 관직을 역임했다. 『太和正音譜』에서는 그의 散曲에 대해 “한가로운 구름이 산봉우리를 벗어나는 것 같다(如閑雲出岫)”고 평했다.

12) 羅海燕, 앞의 논문, 563쪽.

13) 溫斌, 「志心兩離不忽木, 西域儒行第一人」, 『中國文化研究』, 2013, 91~92쪽.

14) 蕭啓慶, 앞의 책, 62쪽.

15) 字는 叔重이며, 호는 東泉으로 당시 사람들이 魯東泉이라고 불렀다. 元 英宗 至治 연간(1321~1323)에 南泉州路總管이 되었고, 泰定 연간(1324~1328)에 翰林侍讀學士, 經筵官, 參知政事 등의 관직을 역임했다. 은퇴하여 杭州에 기거하며 虞集, 張雨와 창화했다. 散曲을 잘 지었고, 『全元散曲』에 小令 19수가 수록되어 있다. 『太和正音譜』에서 그의 가사를 일컬어 “맑은 하늘에 우는 학의 울음소리 같다(如鶴唳青霄)”고 평했다.

을 번역했다. 뿐만 아니라 屈原의 「九歌」를 계승하여 散曲을 창작했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屈原을 敬仰하며 자신의 원대한 이상을 드러내기도 했다.

貫雲石<sup>16)</sup>은 姚燧의 문하에서 수학했고, 최초의 散曲 평론가로서 『陽春白雪』, 『小山樂府』 등의 서문을 썼으며, 散曲 문체를 직설적이고 역동적으로 표현했다. 무엇보다도 『孝經』을 漢語로 직해할 만큼 학문적 깊이가 매우 뛰어났다. 書法에 뛰어났고 詩文과 散曲 창작에 뛰어난 실력을 보였다.

薛昂夫<sup>17)</sup>는 어려서부터 문학을 유난히 좋아했으며, 한때 辛派의 유명한 詞人이었던 劉辰翁의 제자가 되어 유학생이 되고자 열심히 공부했다. 일찌감치 國子學 生員으로 선발되어 大都(현 北京)에 가서 시험에 응시했다. 篆書를 잘 썼고, 詩, 詞, 散曲에 뛰어났으며, 작품마다 독특한 예술적 풍격을 갖췄다.

그 밖에 薩都刺,<sup>18)</sup> 伯顏,<sup>19)</sup> 大食惟寅<sup>20)</sup>과 孟昉<sup>21)</sup>은 다양한 창작기법을 사용하여 散曲을 지었다. 이처럼 소수민족 散曲 작가들은 자발적으로 한족의 문화를 흡수하고 뛰어난 학문 실력으로 散曲을 창작했다.

16) 貫雲石의 字는 浮峯, 號는 酸齋, 蘆花道人이며, 阿里海涯의 손자이다. 大德 말 부친의 작위를 세습 받아서 兩淮 萬戶府의 다루가치가 되었고, 永州의 지방 장관이 되었으며, 나중에 동생에게 관직을 양보했다. 皇慶 2년 翰林侍讀學士, 知制誥同修國史에 제수되었다. 현존하는 散曲으로 小令 86수, 套數 9수가 전해진다. 『太和正音譜』에서는 그의 散曲을 가리켜 “재갈을 벗어난 천마와 같다(如天馬脫羈)”라고 평했다.

17) 薛昂夫는 원래 이름이 超吾이며, 자는 昂夫, 호는 九臯이다. 중국 성은 馬라서 사람들이 馬昂夫, 馬九臯라고 불렀다. 回鶻사람으로 懷孟에서 출생하고 龍興(현 江西 南昌)에서 성장했다. 역대로 江西行中書省令史, 元典瑞院事, 太平路總管 등의 관직을 역임했다. 만년에 관직을 사임하고 杭州에 은거했다. 성격이 강직하고 말에 거침이 없었으며, 청렴결백했다. 散曲으로 小令 65수, 套數 3곡, 殘句 1則이 전한다. 『太和正音譜』에서는 그의 가사를 일컬어 “눈 내리는 창가의 푸른 대나무 같다(如雪窓翠竹)”라고 평했다.

18) “薩都刺은 예술적으로도 성숙한 시가를 창작했으며, 元 소수민족의 시인 가운데 가장 높은 성취를 보인 回族人이다.” 袁行霈 主編, 앞의 책, 308쪽.

19) “伯顏은 많지 않은 散曲 작품을 통해서 시대와 민족의 특징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云峰, 「伯顏及其詩歌散曲創作論」, 『黑龍江民族叢刊』第4期, 2005, 113쪽.

20) 大食惟寅은 散曲 작가인 張可久의 인품과 지위, 창작을 칭송하여 [雙調·燕引雛] 「奉寄小山先輩」를 지어 뛰어난 酬贈 작품을 남겼다.

21) 孟昉은 [越調·天淨沙] 「十二月詞」에서 李賀의 詞를 櫛括하여 散曲을 창작했다.

### 3. 元代 隱逸思想의 형성 배경

元은 몽골인, 色目人, 漢人, 南人의 4등급으로 민족을 나누었는데, 漢人과 南人을 가장 하대했다. 蒙元통치자가 제정한 민족차별정책, 과거제의 폐지는 한족 선비들로 하여금 蒙元통치자에게 반기를 들게 했다. 원래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를 의무로 생각하고, 문화의 전승자를 자처했던 書生儒士들은 元代에 벼슬길이 막힌 상황에서 四民(士·農·工·商)의 첫 번째 자리를 잃고,<sup>22)</sup> 기녀보다도 못한 존재로 사회적 지위가 이전과 달리 현저히 하락했다.<sup>23)</sup>

몽골인의 통치하에서 과거는 장기간 폐지되었고, 나라를 세운지 40년이 지난 仁宗(재위 1312~1320)때에서야 정식으로 과거제도의 회복을 선포했으나, 이 행위는 많은 상징성을 갖는다. 표면적으로 볼 때 과거의 부흥은 중대한 정책의 변화에 속하며, 제국의 통치 패권이 漢化되고 있다는 예시였다.<sup>24)</sup> 元 정부는 정치적으로 한족 지식인들이 벼슬길에 나가고자 하는 요구를 수용했고, 몽골인, 色目人의 漢文化에 대한 영향을 확대<sup>25)</sup>했으나, 민족별로 시험 횟수와 내용의 차이를 보이며 명백한 민족차별에 대한 낙인을 찍었고, 과거시험을 통해 지식인을 참여시키고 사상적 통제를 강화하여 지배적 지위를 공고히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sup>26)</sup> 관료나 서리가 되지 못한 한족 지식인들은 懷才不遇한 처지를 비관하거나, 관료가 될 희망이 없음을 알고 세속을 벗어나 자연에 은거하거나 떠돌이 생활을 했다.<sup>27)</sup>

22) 朱軍, 『元代理學與社會』, 成都: 巴蜀書社, 2022, 384쪽.

23) “당시 첫째는 관료, 둘째는 서리, 셋째는 불교승려, 넷째는 도교의 승려, 다섯째는 의사, 여섯째는 노동자, 일곱째는 사냥꾼, 여덟째는 농민, 아홉째는 유생, 열째는 거지라는 구분이 있다고 일컬어질 정도였다.” 박한제·김형중·김병준·이근명·이근갑, 『아틀라스중국사』, 서울: 세계질, 2008, 123쪽

24) [英] Shane McCausland, 賴星睿 譯, 『蒙古世紀』, 北京: 三聯書店, 2024, 140~143쪽.

25) 吳小如 主編, 劉玉才, 劉寧, 顧永新 編著, 『中國文化史綱要』,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7, 310쪽.

26) 위의 책, 228쪽.

27) 張可久가 [中呂·齊天樂帶紅衫兒] 「道情」에서 “사람들은 梁甫를 읊는다 전하고, 長門賦

몽골인과 色目인이 중원으로 이주한 이후 한족과의 교류는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몽골인과 色目인의 수는 한족의 10~20% 정도였다. 몽골인과 色目인이 한족과 접촉한 이후 각 집단 계층의 사회·문화적 변화의 주요 방향은 몽골인과 色目인이 漢文化를 비교적 많이 수용했고, 한족이 몽골과 色目的 文化를 수용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었다.<sup>28)</sup> 중원과 강남에 이주한 몽골인, 色目인은 한족과 비교했을 때 소수집단으로 이들이 절대 다수와 공생하기 위해서는 주류문화의 수용은 당연한 결과였다. 元 왕조는 한족의 법과 유교의 시행을 실제로 장려하지는 않았으며 항상 몽골 중심 정책을 유지하고 자국민을 우대하는 동시에 色目人을 중용하고, 한족을 견제했다. 그러나 무력만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없었기 때문에 몽골인, 色目인은 반드시 한족의 언어와 학문을 배워야 권력을 잡을 수 있었다. 따라서 몽골 통치자는 이에 따른 모든 조치를 취하고 지원했다. 몽골인, 色目인은 관리가 되기 비교적 쉬울 뿐 아니라 고관자제들은 학문에 의존하지 않고도 주요 자리에 오를 수 있었기 때문에 학문의 연마는 몽골인과 色目인의 자제들에게 쓸모가 없어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특권 세습에는 그 수가 제한되어 있었고, 높은 가문이라고 해도 모두 다 벼슬길에 나아간 것은 아니었다. 설령 벼슬길에 나아가 높은 관직을 차지했다고 해서 편안한 삶이 보장된 것은 아니었다.<sup>29)</sup> 관직을 세습 받지 못한 몽골인과 色目인 가정의 자제들은 시서를 연구하고 학문을 쌓아서 자신의 정치적 앞길을 개척해야 했다.<sup>30)</sup>

민족차별정책과 과거제도의 폐지로 인해 한족 지식인이 관직에 나아가지 못하고 은거하며 隱逸을 노래했다면, 관료가 된 소수민족은 관료생활의 피로감과 공명에 대한 환멸을 느끼며 隱逸을 갈망했다.

를 바친다 하나, 누가 삼고초려 하리오(人傳梁甫吟, 自獻長門賦, 誰三顧茅廬)?”라고 한 것처럼 재주가 있어도 등용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지식인들은 생각했다.

28) 蕭啓慶, 앞의 책, 55쪽.

29) 薛昂夫가 [中呂·山坡羊] 「莊家不識構欄」에서 “높으면 높은 곳에서 괴롭고, 낮으면, 낮은 곳에서 괴롭네(高, 高處苦; 低, 低處苦).”라고 한 부분을 보면 알 수 있다.

30) 蕭啓慶, 『九州四海風雅同: 元代多族士人圈的形成與發展』, 新北: 聯經, 2019, 17쪽.

隱逸은 避世 즉, 세상을 피해 사는 일이지만, 세상에 대한 단순한 회피가 아니다. 그 속에는 세속의 功名을 포기하고 어부와 나무꾼으로서의 생활과 산수유람, 유희자적인 삶의 내용을 담고 있다. 隱逸속의 避世는 儒家와 道家에 모두 나타나는 思想이다. 儒家의 避世는 물러서는 것은 나아가는 것이라는 처세의 도리로써 入世의 또 다른 방식으로, 儒家 사상에서는 속세를 벗어나 새나 짐승과 더불어 무리지어 사는 진정한 은둔자가 될 수는 없다.<sup>31)</sup> 따라서 儒家의 隱逸은 산수의 즐거움에 탐닉하는 것이 아니라 조화로운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이면서 일종의 항의의 표시로써,<sup>32)</sup> 出仕의 길이 막힌 지식인들은 儒家 사상의 뜻을 실천했다.<sup>33)</sup> 반면에 道家의 避世는 儒家의 避世와는 다르게 그 자체로 인생의 최고 방식이다. 儒家의 관념 속에서 인간의 자아실현, 인생의 가치는 반드시 사회관계속에서 원만하게 이룰 수 있다. 따라서 儒家에서 특정한 인격의 실체는 일종의 후천적이며, 일정한 수양을 거쳐서 얻은 윤리문화정신이다. 道家의 인격관은 儒家와는 반대이다. 자연과의 합일, 무위자연, 현세초월을 주장한 老庄思想은 지식인들에게 현실을 벗어나 산수에서 즐거움을 찾도록 했다.<sup>34)</sup> 名利를 초월하고 인생을 즐기려는 태도, 자연의 흐름에 따르는 운명론적 삶의 태도, 자연과 은둔 생활에의 동경 등 道家의 避世觀 역시 지식인들로 하여금 隱逸하여 산수자연에서 즐거움을 찾도록 했다.

31) “새나 짐승과 더불어 무리지어 살 수는 없으니, 내가 이 사람들과 더불어 살지 않고 누구와 더불어 살겠는가(鳥獸不可與同羣, 吾非斯人之徒與而誰與)?”라고 말하며 孔子는 사회 개혁에 대한 개인적인 열망과 적극적인 入世사상을 제시했다. 楊伯峻 譯注, 『論語譯注』, 北京: 中華書局, 2008. 194쪽.

32) 蔣義斌, 「『論語』 隱處思想對現代社會的反思」, 『宗教哲學』 第6卷第2期, 2000, 8쪽.

33) “천하에 도가 있으면 나타나 벼슬하고, 도가 없으면 숨어야 한다.”…… “나라에 도가 없을 때 부하고 귀한 것이 부끄러운 일이다(天下有道則見, 無道則隱. …… 邦無道, 富且貴焉, 恥也).” 『論語·泰伯』; “숨어 살면서 그 뜻을 구한다(隱居以求其志).” 『論語·季氏』

34)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上善若水)”, “도는 언제든지 역지로 일을 하지 않으나, 안된 것이 없다(道常無爲而無不爲)” 『老子』; “샘물이 말라 물고기가 땅위에 모여 서로 물기를 끼얹고, 서로 물거품으로 적셔 죽은 강이나 호수에서 서로를 잊고 있는 것만 못하다(泉涸, 魚相與處於陸, 相响以濕, 相濡以沫, 不如相忘於江湖).” 『莊子·大宗師』

#### 4. 『全元散曲』에 나타난 元代 소수민족의 隱逸思想

##### 1) 저항으로서의 隱逸: 功名에 대한 혐오

不忽木은 「辭朝」에서 조정의 혼란과 권신들의 권력다툼을 보면서 隱逸을 결심하는데, 첫 곡 [仙呂點絳脣]에서 이렇게 노래한다.

차라리 술지게미 언덕에 누워있는 것이 군주의 손에 목숨을 맡기는 것보다 낫겠구나. 마음을 알아주는 벗 몇 명을 찾아서, 즐거움으로 근심을 잊고, 숲과 샘 있는 곳의 늪은이 되고 싶네.<sup>35)</sup>

不忽木은 어두운 사회현실에 직면하여 관료사회의 추악함과 간악한 권세가의 횡포를 폭로했다.<sup>36)</sup> 그는 청렴결백한 관리로서, 권신들의 질투를 받고 관직에서 물러나기도 했는데, “평소엔 조용하지만, 황제 앞에서 정사를 논할 때에는 말이 유창하고 목소리가 우렁차며, 중요한 사상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천하의 중책을 자신의 책무로 여기며, 아는 것은 숨김없이 말했다”<sup>37)</sup>고 한다.

[混江龍] 넓은 소매의 무명옷에도 기쁘니 어느 곳에서 왕후를 보랴. 그러나 술잔에 술 있으니, 몸 이외엔 근심 없네. 남겨진 바둑알 세니 새벽 강가에 달뜨고, 긴 휘파람 소리는 가을 바닷가 어귀에 울리네. 산 속에 묻혀 살고, 숲 속에 은거하며, 맑은 샘에서 발을 씻는 것이, 상관없는 일로 신경을 쓰는 것보다 낫구나. 담박한 삶의 맛을 누가 깊이 깨달으랴, 도롱이 입고 소박한 음식 먹는 것이, 살찐 말과 갓옷보다 낫다는 것을. [油葫蘆] 비록 귀를 씻은 시냇가에 살아도 소에게는 먹이지 않고, 가난해도 스스로 절개를 지키고, 한가로움을 즐기던 몸은 오히려 관직에 갇힌 죄수 되었네. 험령하고 낡은 배옷 입고도 포부는 원대하고, 옥통소 불며 하늘 이야기 독점했네. 통소 분 오원을 슬퍼하고, 표주박 버린 허유를

35) [點絳脣] “寧可身臥糟丘，賽強如命懸君手。尋幾個知心友，樂以忘憂，願作林泉叟。”

36) 張迎勝, 앞의 책, 273쪽.

37) “居則沈默，及帝王前論事，吐辭洪暢，引義正大，以天下之重自任，知無不言。” 『元史』卷130「列傳」第17, 2451쪽.

배우네. 들판의 구름은 끊임없이 산골짜기에서 나오니, 누가 벼슬길 중도에 그만두랴. [天下樂] 군왕 섬기는 일 끝이 없는 걸 분명히 알고 있으니, 그만두자, 그만두자, 손쓸 도리 없으니, 헤엄치는 물고기가 먹이는 보고 갈고리는 보지 못하네. 모두 종이 반장에 적힌 공명으로 한 줄로 지워질 것일 뿐, 급히 고개 돌리니 두 귀밑머리는 쇠었구나. [那吒令] 누가 떨어지는 꽃 같은 벼를 기다리고, 누가 주마등같은 정권다툼을 기다리랴, 눈 깜짝할 사이 세월은 흘러가네. 설령 명예와 이익 이루고, 전원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모두 마소가 오가는 것처럼 덧없는 것이라네.<sup>38)</sup>

不忽木은 솔직하고 거침없는 말투로 [混江龍]에서는 관복을 벗은 평범한 백성으로서 왕후를 뵈러 가야 할 부담에서 벗어난 홀가분한 상황을 묘사했다. 많은 사람들이 관료가 되려고 애쓰지만, 저자는 명리와 부귀도 별 의미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油葫蘆]에서는 세상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음을 말하고, 堯舜시대 저명한 은사인 許由와 巢父의 고사를 사용하여<sup>39)</sup> 隱逸에 대한 뜻과 의지를 밝혔다. [天下樂]에서는 벼슬과 은거 사이의 내적 갈등을 서술하고, [那吒令]에서는 허무주의 관점에서 관료와 隱者의 서열의 구분을 부정하고 어두운 현실에 대한 통한을 표출한다.<sup>40)</sup>

이어지는 아홉 곡에서 저자는 臣이라는 1인칭을 사용하여, 관료생활과 隱逸의 삶을 대비하면서 관직을 그만두고 싶은 마음을 구체적으로 표현했다. 관료의 지친 삶보다는 산림에서 얻은 자유가 더 좋고, 추위와 굶주림, 낡은 옷

38) “ [混江龍] 布袍寬袖，樂然何處謁王侯。但樽中有酒，身外無愁。數着殘棋江月曉，一聲長嘯海門秋。山間深住，林下隱居，清泉濯足，強如閑事繫心。淡生涯一味誰參透，草衣木食，勝如肥馬輕裘。 [油葫蘆] 雖住在洗耳溪邊不飲牛，貧自守，樂閑身翻作抱官囚。布袍寬袖拿云手，玉簫占斷談天口。吹簫傷伍員，棄瓢學許由。野雲不斷深山岫，誰肯官路里半途休。 [天下樂] 明放着伏事君王不到頭，休、休，難措手，游魚兒見食不見鉤。都只爲半紙功名一筆勾，急回頭兩鬢秋。 [那吒令] 誰待似落花般鶯朋燕友，誰待似轉燈般龍爭虎鬪，你看這迅指間烏飛兔走。假若名利成，至如田園就，都是些去馬來牛。”

39) 堯가 許由에게 친하를 주려고 하자 許由는 이를 치욕으로 여기고 달아나 은거했고, (『史記·伯夷列傳』) 다시 부름을 받고는 귀조차 더럽다고 냇가에 귀를 씻었으며, 巢父는 나중에 상류에 가서 송아지에게 물을 먹였다는 고사.

40) 張迎勝, 앞의 책, 271쪽.

도 상관없으며, 선가에서 마시는 술 두, 세잔이 한림풍월의 삼천수보다 낫고, 三島十洲의 손님들과 어울리는 것이, 公卿과 萬戶侯의 연회보다 낫다고 말한다. “고관 되어 중책 맡는 것은 감당하기 힘든 일이라네”<sup>41)</sup>, “황실의 술 마시는 것이 두렵네”<sup>42)</sup>라고 하며 관료생활의 어려움과 두려움을 고백한다. 현실을 비판하고 공명에 저항하여 隱逸을 택한 저자의 마음을 엿볼 수 있다.

李羅御史<sup>43)</sup> 역시 「辭官」에서 관직에서 물러나고 싶은 심정을 표출했다.

〔南呂·一枝花〕「辭官」

게을리 해치관 쓰기 싫고, 기린각의 얼굴 그림에도 들어가고 싶지 않네. 도연명이 국화를 심고, 소평이 과 심는 것 배워야겠네. 시끌벅적하게 개미가 진을 치고 꿀벌이 집을 짓듯 명리를 다투는 것은 보기 싫고, 청총마를 팔아서, 밭가는 소로 바꿔 세월을 보내려네. 명예를 다투는 곳은 다시 밟지 않으리니, 세상의 풍파가 사실 두렵네. [梁州] 제비와 참새가 제멋대로 처마에서 우는 소리 컷가에 시끄럽고, 승냥이와 이리가 길가에서 이빨을 갈더라도 내버려 두고, 관직도 진언의 책임도 더는 얽매이지 않으리라. ……<sup>44)</sup>

〔一枝花〕에서는 名利를 멀리하고 싶은 마음과 다시 관직에 나가고 싶지 않은 의지를 밝혔다. 御史는 관리의 악행을 검열하고, 모든 관리의 일을 살펴서 잘못을 바로잡는 기율 감찰 관리로서 통치 집단의 정치 투쟁에서 최전선에 있는 인물이다. 저자는 功臣으로 그 모습이 부각되는 것도 원치 않을 만큼 감찰 관리로서 어려움과 위험을 느끼고 있다. [梁州]에서는 관료사회의 시

41) 〔柳葉兒〕“……想高官重職難消受。……”

42) 〔賺尾〕“……臣怕飲的是黃封御酒。……”

43) 李羅御史는 山北 遼陽등의 路에서 몽골 군대의 萬戶가 되었다. 延祐 3년(1316) 周王인 和世王東이 和寧의 북쪽에서 황제라 칭하고, 李羅를 御史大夫에 봉했으며, 開府儀同三司典 四番宿衛에 제수했다. 얼마 뒤에 和世王東이 大都에서 급사하자 李羅는 어쩔 수 없이 관직을 내려놓게 되었다.

44) “〔一枝花〕懶簪解多冠, 不入麒麟畫。旋栽陶令菊, 學種邵平瓜。觀不的鬧穰穰蟻陣蜂衙, 賣了青驄馬, 換耕牛度歲華。利名場再不行踏, 風波海其實怕他。〔梁州〕盡燕雀喧檐聒耳, 任豺狼當道磨牙。無官守無言責相牽挂。……”

시비비에 관여하지 않고 은거하여 세속에 구속되지 않고 평안하게 살고 싶은 마음을 표현했다. 그리고 [牧羊關]에서 “나는 더 이상 순찰하며 악인을 잡으러 다니고 싶지 않네. 어사대가 나를 해고했지만, 堯民圖에 내가 더해졌네”<sup>45)</sup>라고 하며 관료의 삶을 살고 싶지 않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한다. 「辭官」은 많은 관리들이 정치적 재앙을 피해 관직을 사임하고 은거한 뒤 농촌 생활에 대한 만족감을 질박하고 속된 언어로 표현하고, 元代라는 특수한 역사적 환경아래 정치적 재앙에서 벗어나려고 한 지식인들의 소극적 저항정신과 몽골인 어사까지도 관직을 그만두고 은거에 이르게 한 통치 집단의 내부갈등을 반영했다.<sup>46)</sup>

貫雲石은 관직의 험난함을 탄식하고,<sup>47)</sup> 병을 핑계로 강남에 은거했다.<sup>48)</sup> [雙調·清江引] 제2수에서는功名과 관직에 대한 저자의 분명한 인식과 은거의 원인을 밝힌다.

공명을 다투는 것은 수레가 언덕을 내려가는 것과 같으니, 위험함을 누가 깨달으랴. 어제는 한림원의 신하였으나, 오늘은 재앙을 만났네. 어찌 알랴, 내가 풍파를 피해 안락한 움집으로 나아간 것을.<sup>49)</sup>

공명을 얻은 사람이 갑자기 화를 당하는 元代 관료 사회의 위험한 현실을 폭로한다. 武宗, 仁宗 두 왕조 때에 황위 쟁탈로 인해서 무고한 대신에게 화가 미쳤다. 安西王을 옹립하려는 대신들이 武宗에 의해 죽임을 당했고, 仁宗은 즉위 전후로 자기와 견해가 다른 사람을 배제하고 丞相 脫虎脫 등 많은 대신을 죽였다. 貫雲石은 仁宗과 英宗의 잘못된 행동을 꼬집었다. 貫雲石의 스

45) “俺再不想巡案去奸猾。御史台開除我，堯民圖添上咱。”

46) 趙義山 主編, 『元曲鑑賞辭典』, 北京: 商務印書館, 2012, 130쪽.

47) “관직의 험난함에 대한 貫雲石의 탄식은 조부 阿里海牙가 정치투쟁 속에서 자진한 것과 관련이 있다.” 鄧紹基, 『元代文學史』,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91, 331쪽.

48) “병을 핑계로 사직하고 강남으로 돌아와 전당시에서 약을 팔면서 성명을 속이고 복색을 바꾸니 그를 알아보는 자가 없었다(稱疾辭還江南, 賣藥於錢塘市中, 詭姓名, 易服色, 人無有識之者)”고 한다. 『元史』 卷143, 列傳 第30 「小雲石海涯傳」, 2670쪽.

49) “競功名有如車下坡, 驚險誰參破, 昨日玉堂臣, 今日遭殘禍。 爭知我避風波走在安樂窩。”

승인 평장정사 李孟 또한 작위를 박탈당하고 좌천 되었다. 貫雲石이 관직을 버리고 西湖에 은거하지 않았다면 그 역시 재앙을 피하지 못했을 것이다.<sup>50)</sup> 문인들은 거처의 명명을 통해 隱逸과 초연한 삶에 대한 이상을 표현했는데, 阿里西瑛<sup>51)</sup>의 [雙調·殿前歡] 「懶雲窩」<sup>52)</sup>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서영은 자신의 거처를 ‘懶雲窩’라고 이름 짓고 [殿前歡] 곡조를 지어 스스로를 표현했다.

나운와에서 술 깨면 시를 짓고 술 취하면 노래하네. 아름다운 거문고 내 버려두고 책 던진 채 드러누우니, 부귀영화의 꿈조차 꾸지 않네. 한적하니 그저 즐거운 것을, 세월은 벼들의 복처럼 지나고, 부귀영화는 피었다 지는 꽃과 같을 뿐. 청춘도 떠났으니, 즐기지 않으면 어찌하랴.<sup>53)</sup>

나운와에서 술 깨면 시를 짓고 술 취하면 노래하네. 아름다운 옥 거문고 연주하지 않으면, 책 던진 채 드러누워, 절로 유유자적하네. 인생을 생각하니 무엇을 바라겠는가? 부귀영화는 피었다 지는 꽃과 같을 뿐, 세월은 벼들을 지나는 복처럼 눈 깜짝할 사이인 것을. 사람들 날 보고 허허 비웃으니, 나도 그들보고 허허 비웃네.<sup>54)</sup>

나운와에 손님이 오면 어떻게 대접할까? 난운와에서 웃 입은 채 그대로 누워, 절로 유유자적하네. 인생을 생각하니 무엇을 바라겠는가? 나보다 지위가 높은들 무슨 소용 있겠는가? 나보다 재산이 많다 한들 무슨 의미

50) 劉坎龍, 「論元代西域少數民族詩人散曲創作之價值」, 『新疆師範大學學報』第2期, 1991, 33쪽.

51) 元 曲家인 阿里耀卿의 아들로 채구가 장대하여 사람들이 거인 西瑛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교제에 능하고 음률에 뛰어났으며 西域의 관악기인 필률을 잘 불었다. 현존하는 小令(4수)은 모두 저자의 나른하고 게으른 모습과 시와 술에 감정을 기탁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풍격이 소박하고 진솔하며 거침없는 말투에 유머가 있다.

52) 懶雲窩는 吳城(현 江蘇省 蘇州) 동북쪽 언덕에 있는 阿里西瑛의 서재로 그 명칭은 北宋의 邵雍의 거처 安樂窩에서 유래했다. 邵雍은 “때맞춰 농사지으며, 겨우 입고 먹을 것을 해결했다(歲時耕稼, 僅給衣食)”고 한다. 『宋史』卷427, 列傳 第186, 9288쪽.

53) 西瑛有居號懶雲窩, 以殿前歡調歌此以自述. “懶雲窩, 醒時詩酒醉時歌. 瑤琴不理拋書臥, 無夢南柯. 得清閑盡快活, 日月似攬梭過, 富貴比花開落. 青春去也, 不樂如何?”

54) “懶雲窩, 醒時詩酒醉時歌. 瑤琴不理拋書臥, 儘自磨陀. 想人生待則麼? 富貴比花開落, 日月似攬梭過. 呵呵笑我, 我笑呵呵.”

있겠는가? 사람들 날 보고 허허 비웃으니, 나도 그들보고 허허 비웃네.<sup>55)</sup>

이 곡은 표면적으로는 제때에 삶을 즐기자며 懶雲窩에서의 자유로운 생활을 묘사했으나, 그 이면에는 괴로움과 절망 속에 공명과 이익에 대한 멸시와 당시 지식인들의 나태함과 세속에 구속받지 않으려는 심리, 元代 통치자들에게 소극적으로 저항하게 된 어쩔 수 없는 마음을 반영하고 있다. 저자는 게으르다고 자신을 비웃는 세상 사람들이名利만을 쫓는 것에 대해 경멸하고, 무력한 태도로 고통을 즐기며 자기 최면 속에 미친 듯이 소리치는데, 이것은 현실의 자극과 억압 속에서 살아있는 마음의 외침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소리는 매우 약하지만 결국에는 의로운 저항의 의미가 담겨 있다.<sup>56)</sup> 阿里西璜은 「嘆世」에서 “그대는 능연각을 바라보나, 공명은 내 것이 아니네.…… 술잔 마주하고 즐겁게 노래하리라. 근심걱정 없이, 편안하고 즐거운 움집에서”<sup>57)</sup> 라고 하며, 唐太宗때 凌煙閣에 이름이 새겨진 개국공신처럼 공명 세우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元의 전제 통치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공명을 쫓는 것에 대한 경멸은 고관대작을 썩어문드러진 양에 비유하기도 했는데, 阿魯威의 [雙調·蟾宮曲] 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썩어문드러진 양머리로 제후에 봉해진들 누가 부러워하라? 술잔 기울이며 시 읊조리는 것, 그 또한 풍류가 있다네. 덧없이 빨리 흐르는 세월은, 먼지 속 야생마와 같으니, 한가롭게 떠도는 갈매기 막지 못하네. 공허한 세상을 떠나 온 땅을 이리저리 다니다가, 호산에서 여러 해 보내리라. 하지만 지금은 귀향하여 등루부를 쓰며, 귀밀머리 희끗희끗해지도록, 남쪽 고을에서 늙어가네.<sup>58)</sup>

55) “懶雲窩，客至待如何？懶雲窩裏和衣臥，儘自婆娑。想人生待則麼？貴比我高些個，富比我松些個，呵呵笑我，我笑呵呵”

56) 張迎勝, 앞의 책, 281쪽.

57) [商調·涼亭樂] 「嘆世」“……你試看凌煙閣上，功名不在我。……對酒當歌且快活。無憂愁，安樂窩。”

58) “爛羊頭誰羨封侯？鬥酒篇詩，也自風流。過隙光陰，塵埃野馬，不障閑鷗。離汗漫飄蓬九有，向壺山小隱三秋。歸賦登樓，白發蕭蕭，老我南州。”

阿魯威는 後漢때 매관매직이 성행했던 상황<sup>59)</sup> 빗대어 元代 관료사회를 비판하고, 관직을 그만두고 은거하고 싶은 열망은 있으나 자신의 원대한 포부를 버리기는 쉽지 않은 내면의 갈등과 고통을 표현했다. 짧은 인생에서 구속 받지 않는 자유로운 생활을 꿈꿨지만 결국 현실정치에 몸담고 있는 자신의 삶에 대한 불만과 어쩔 수 없음이 엿보인다. 阿魯威는 몽골인으로 상류층에 속한 인물이나 劍南(현 福建省 南平)의 太守라는 작은 직책을 맡았다. 북방 귀족 계층으로 멀고 외진 남방의 관직을 맡은 불만과 억압된 감정이 상당히 폭발했을 것으로 보인다.

薛昂夫 역시 세상의 불합리한 현상에 대해 비판하며 관직을 버리고 은거하겠다는 결의를 보인다. [中呂·朝天曲]에서 “좋은 벼슬도, 흥이 다하면 시들하니, 일찌감치 용감히 물러났으면 근심 없었을 텐데”<sup>60)</sup>라고 하며 자신이 名利를 오랫동안 탐하고, 뒤늦게 관직을 그만두는 것을 후회하며, 옛사람을 본보기로 삼아서 隱逸을 결심한다. 보편적인 儒家 사상에서 추구하는 삶이 입신양명을 통해 가문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薛昂夫는 관료의 삶보다는 隱者의 삶을 원했다. 때로 功名에 빠져 名利를 쫓는다고 생각이 되면 [正宮·塞鴻秋]에서처럼 그런 자신을 조롱하기도 했다.

공명은 만리를 쫓으니 제비처럼 바쁘고, 문장은 한 가닥 실처럼 가느네.  
세월은 짧은 틈으로 번개처럼 흐르고, 모진 풍파에 양 귀밑머리는 생사  
처럼 희었네. 다들 말하길 관직 그만두겠노라 하지만, 숲 아래에서 언제  
그들을 만난 적이 있는가? 지금까지도 팽택현은 적막하네.<sup>61)</sup>

薛昂夫는 이 곡을 통해 입으로는 관직을 그만두고 전원으로 돌아간다고 외

59) 更始帝 劉玄이 상인, 도살업자, 요리사를 고관에 임명하면서 당시 長安에는 “부뚜막 아래서 기른 중랑장, 썩은 양 내장 기도위, 썩은 양머리 관내후(籠下養, 中郎將; 爛羊胃, 騎都尉; 爛羊頭, 關內侯)”라는 말까지 유행했다. 『後漢書』卷41, 「劉玄傳」, 456쪽.

60) “好官, 也興闌, 早勇退身无患……”

61) “功名萬里忙如燕, 斯文一脉微如線。光陰寸隙流如電, 風霜兩鬢白如練。盡道便休官, 林下何曾見? 至今寂寞彭澤縣。”

치며 청렴한 관리인 척 하지만 사실은 열심히 功名을 쫓는 관리의 본모습을 폭로한다. 동시에 당시 사회의 세태 속에서 名利에 신경 쓰지 않는 고결한 선비가 실제로 많지 않음을 한탄한다. 성현의 道와 그들의 문장, 학업이 푸대접 받는 모습을 서술했고, 특히 유머의 필치를 사용하여 功名을 추구하는 문인에 대해 풍자했다.<sup>62)</sup> 薛昂夫는 많은 관료들이 功名을 구하면서 헛되이 세월을 보내고 관직에서 물러나 은거하겠다고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는 것을 경험한다. 따라서 이 곡을 통해 부패한 관료사회에 대해 공격하고 부조리한 자신의 행동에 대해 비판하고 성찰했다고 볼 수 있다.

## 2) 동경으로서의 隱逸: 이상적 삶의 실천

관료생활에 지친 薛昂夫는 “배와 수레가 싫고, 거문고와 서적이 좋구나”라고 하며 “석양의 외발 지켜야”한다고 말한다.<sup>63)</sup> 陶淵明을 비롯한 隱者들의 처신과 그들의 삶에 대한 동경에서 저자는 隱逸을 노래했다. 薛昂夫는 [雙調·慶東原] 「自笑」에서 “이제부터 벼슬 그만두고, 陶淵明의 뒤를 따르려네”<sup>64)</sup>라고 하며, 진심을 다해 관직에서 물러나 陶淵明과 같은 隱者의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했다. [中呂·陽春曲] 「隱居漫興」 6수 역시 은거생활 속의 흥미와 기쁨을 서술한 곡으로 隱逸의 흥취가 드러난다.

앉아서 중서성의 종소리 듣고, 자고 일어나니 동창에 해 그림자 붉으니,  
산림과 조정과 시정의 두 세상 끝이 없네. 꿈속에서, 술잔에 술 있으니  
여유롭구나.<sup>65)</sup>

62) 楊鐮, 石曉奇, 欒睿, 『元曲家薛昂夫』, 烏魯木齊: 新疆人民出版社, 1992, 125쪽.

63) [中呂·山坡羊] 「莊家不識枸欄」 “……厭舟車, 喜琴書. 早星星鬢影瓜田暮……”

64) “從此便休官, 已落淵明後。”

65) [雙調·慶東原] 「西臯亭適興」: “坐聽西掖鐘聲動, 睡起東窗日影紅, 山林朝市兩無窮. 一夢中, 樽有酒且從容。”

관직 생활과 비교했을 때 현재 삶의 즐거움이 극에 달함을 보여준다. 隱者의 삶은 곤궁하지만 자유가 있고, 술이 있고, 벗들과 함께 시문을 논하는 즐거움이 있다.

〔雙調·慶東原〕「西臯亭適興」

흥은 세금 독촉에 깨지고, 기쁨은 술을 보내와서 생겨나며, 술 취하니 시적 흥취는 여전하네. 국화는 다시 피고, 붉은 얼굴은 아직 늙지 않았으니, 바로 근심을 잊을 수 있네. 감주야 있든 없든, 방계만 있으면 된다네.<sup>66)</sup>

저자의 소탈한 생활태도를 엿볼 수 있다. 세금 독촉이라는 현실과 술과 시, 국화, 대가로 대표되는 풍류를 대비하여 隱逸의 즐거움을 서술했다. 薛昂夫는 특히 套數 「高隱」에서 은거라는 이상적인 경지에 대해 고심하여 하나의 청사진을 만들었고, 상세하면서도 사실적으로 농촌의 생활을 묘사했다.<sup>67)</sup>

〔滾繡球〕 차라리 산골 밭 한, 두 이랑에 씨 뿌리고, 뽕나무와 삼 수백 그루 심고, 가족들 시켜 소를 몰아 밭 갈고 파종하며, 걱정 없이 풀 지붕 없는 비탈 집에 사는 것이 낫겠네. 아침나절에 곡식 자라면 호미질하고, 때 맞춰 기장과 콩을 베며, 봄누에 길러 뽕잎 썬느라 바쁘니, 아내는 베틀에 앉아 베를 짜네. 투박한 여중은 부지런히 목화솜에서 실을 뽑고, 촌뜨기 여중은 서둘러 삼실을 꼬며, 모두 농기구로 집안일 하네. 〔倘秀才〕 한가할 땐 성긴 숲 밖에서 사기 사발과 질그릇에, 갓 따온 덜 익은 복숭아와 단단한 열매 담아두고, 해질 무렵 노을 지니 경치는 더욱 아름답네. 저 멀리 흐르는 물소리 듣고, 산등성이 험준한 산새 바라보며, 우리 마을 농부들과 어울리네. 〔滾繡球〕 장맹고가 사 부르는 것을 듣고, 촌가가 우스운 행동하는 것을 보며, 왕류는 심심풀이로 농담 던지며 장난치고, 이 대공은 입만 열었다 하면 아무 말이나 지껄이고, 조우표는 죽마놀이를 하고, 사우근은 제멋대로 노래 부르고, 강사삼은 곡파를 추네. 우리 이곳엔 맛있는 술 없지만, 질그릇의 탁주 지게미까지 마시고, 탁자위에 생오이 꼭지까지 쪼개어, 바로 먹으며 희희낙락 〔倘秀才〕 정말이지 술이 없

66) “興爲催租敗，歡因送酒來，酒酣時詩興依然在。黃花又開，朱顏未衰，正好忘懷。管甚有監州，不可無螃蟹。”

67) 張迎勝, 앞의 책, 181쪽.

으면 거르지 않은 술 다시 발효시키고, 안주 없으면 생가지 몇 개 따서  
장에 찍어 먹고, 정말로 고주망태 될 때까지 맘껏 마시네. 고개를 드니  
산은 은은하고, 손뼉 치며 곱곶, 이보다 더 즐거울 수 있을까. ……68)

제4곡 [滾繡球] 에서 제7곡 [倘秀才] 까지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 자급자족하는 이상적인 삶이 그림처럼 펼쳐진다. 특히 마을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흥겨운 일상은 공동체적 삶의 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 탐욕 부리지 않고 주어진 대로 살아가며, 직접 농사지으며 사는 소박한 삶을 서술하고, 아름다운 풍경을 묘사했다. 노을과 물소리 등 시·청각의 자극은 아름다운 풍경의 생동감을 더해준다. 마을 사람들과 모여서 잡담하며 즐기는 생활과 거르지 않은 술과 생오이 대강 쪼개어 먹어도 웃을 수 있는 소박한 삶의 모습이 보인다. 주위의 시선과 시간을 신경 쓰지 않고 사는 여유는 저자가 그려낸 이상적 삶의 실천으로 동경의 隱逸이라고 할 수 있다. [倘秀才] 이하 이어지는 곡에서는 봄날의 만물의 소생을 축하하고, 여름날의 놀이를 묘사하며, 가을의 풍요로움을 그리고, 겨울에 내리는 눈을 묘사했다. 일 년 사계절 절기에 순응하는 모습과 자연의 아름다운 풍경에 서로 다른 즐거움을 누린다. 그리고 마지막 곡에서 “크게 옳은 것도 그른 것도 없으니 너무 즐겁네”<sup>69)</sup>라고 끝을 맺는다. 구속받지 않는 자유로운 삶과 隱者인 陶淵明과 그 삶에의 동경은 소수민족 지식인들이 隱逸을 꿈꾸게 한 동인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貫雲石 역시 [雙調·殿前歡] 에서 “陶淵明을 본받아 은둔”하려고 했고 결심이 늦어진 것 같아 “학과 산새가 늦었다고 나를 나무라며 원망할까봐”라고

68) “…… [滾繡球] 則不如種山田一二畝，栽桑麻數百棵，驅家人使牛耕播，住幾間無憂愁草苦莊坡。一朝苗稼鋤，趁時將黍豆割，養春蠶桑葉忙剝，着山妻上布織梭。禿廝姑緊緊的將綿花紡，村伴姐慌將麻線搓，一弄兒農器家活。 [倘秀才] 閑時節疏林外磁甌瓦鉢，盛摘下些生桃硬果，晚趁斜陽景物多。聽水聲流浪遠，觀山色嶺嵯峨，與俺那莊農每會合。 [滾繡球] 聽張瞥古唱會詞，看村哥打會訛，挺王留訕牙閑嗑，李大公信口開合，趙牛表躑躅會，史牛斤喇會歌，強沙三舞一會曲破。俺這裏雖無那玉液金波，瓦盆中濁酒連糟飲，桌兒上生瓜帶梗割，直喫的樂樂醃醃。 [倘秀才] 果然你無酒時渾醅再釀，無按酒時摘幾箇生茄兒來醬抹，真喫的爛醉如泥盡意呵。舉頭山隱隱，攔手笑呵呵，倒大來快活。……”

69) “ [尾聲] 四時景物佳，放行該堪正可。我比你少憂愁省煩惱無災禍，到大來無是非快活煞我！”

걱정하기도 한다. 陶淵明이 일찍이 관직을 버리고 전원으로 돌아간 것을 모방하여 더 이상 공명을 따져 묻지 않았으니 이것이 자신의 행동과 부합했기 때문에 “산재가 나이고, 내가 산재이다”<sup>70)</sup>라고 말한다. 이것은 자아의 진면목이다. 관직에서 물러난 뒤 자아를 찾아서 더할 나위 없이 즐겁고 흥분되는 것은 마치 세상에 대한 隱者의 선언이며 隱逸은 이상과 동경으로서 선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仙呂·村里逐鼓] 「隱逸」

나는 이 물가 숲 아래에, 대나무 울타리 두른 초가를 지었네. 한가할 때는 산 바라보고 물놀이하며, 답답할 때는 어부, 나무꾼과 한담을 나누네. 나는 이곳에 푸른 버드나무 심고, 노란 국화 심으니 산과 숲이 그림 같네. 답답할 때 푸른 산을 보고, 푸른 물을 감상하며, 떨어진 꽃잎 가리키니, 아, 내 심란한 마음을 가뉘 버리네. [元和令] 사립문 닫으니 노을 지고, 지팡이 끝에 밝은 달 걸렸네. 나는 그저 푸른 산 그림자 속에 낚싯배 바라보고, 천천히 거닐며 한가하게 지내네. 답답하면 홀로 하늘 끝 마주하고, 마을 술 한 사발에 흥취 더하네. [上马娇] 물고기 직접 잡고, 뭍나무 모으네. 일없으면 싸리문 닫고, 취하면 조롱박 넝쿨 아래 드러눕고, 잠에서 깨면 바로 차를 우리네. [游四门] 연단 화로 앞에서 경전 읽으며 생활하고, 소평 본받아 오이 심네. 도연명처럼 동쪽 울타리 아래에서 국화를 감상하고, 종일 유하주 마시네. 나는, 화로에서 단사를 연단하네. [胜葫蘆] 나는 그저 한가롭게 유유자적하며 웃고 놀다가, 여기저기 뽕나무와 삼을 심고, 여유롭게 정원에서 울어대는 밤 까마귀 구경하네. 마음에 걱정근심 없이, 한가롭게 나귀 타고, 이웃마을 산책하네. [后庭花] 나는 어린 무청 이파리 채 삶고, 고운 토란 떡 만들어 기름에 튀기네. 백주는 사기잔에 넘치고, 들꽃을 머리 위에 꽂네. 흥이 나면 하하 크게 웃고, 마을 술 다 마시네. 사립문을 둘러싸고 흐르는 물웅덩이, 근처 산마을에서 떨어진 꽃 바라보니, 이곳이 바로 봉래라네. [青哥兒] 아, 일대의 구름 긴 산은, 한 폭의 그림 같고, 그야말로 절경이라, 과장할 만하네. 남은 산은 어디에 있나? 마음속엔 거리낌 없고, 수풀 아래에는, 야자나무 표주박 높게 걸렸네. 적막하여 시시비비 따질 일 없이 『莊子』를 암송하니. 이곳의 천지는 광활하구나.<sup>71)</sup>

70) [雙調·殿前歡] “……就淵明歸去來，怕鶴怨山禽怪，問甚功名在？酸齋是我，我是酸齋。”

[村里逐鼓] 에서는 초가를 짓고 버드나무와 노란국화를 심으며, 산과 물을 감상하고, 어부, 나무꾼과 한담을 나누면서 스스로 세속적 욕망을 차단한다. [元和令] 에서 묘사된 은거생활의 적막과 고독은 관료사회의 시끄럽고 혼탁한 모습과 선명한 대비를 보인다. [上馬嬌] 에서는 세속의 예법에 구속 받지 않는 생활을 확인할 수 있다. [游四門] 과 [胜葫蘆] 에서는 오이심기, 국화감상, 음주, 연단과 경전 읽기, 산책 등 隱者로서의 생활이 묘사되었고, 隱逸의 정취가 표현되었다. [后庭花] 에서는 자연에서 얻는 소박한 음식과 여유로운 삶의 모습이 아름다운 풍경을 배경으로 펼쳐진다. [青哥兒] 에서는 자연의 절경을 묘사하고 시비 가릴 필요 없는 여유로움 속에서 『莊子』를 읽는 상황을 서술했다. 일반적으로 은거생활에 대한 묘사는 주로 고적함이 드러나고 심지어는 “속세의 화식을 먹지 않는” 느낌이 있는 반면에, 이 곡은 산촌과 전원생활의 즐거움이 가득하다고 할 수 있다.<sup>72)</sup> 곡 전체에서는 흥기분하고 화목한 분위기가 느껴진다. 시적인 정취와 그림처럼 아름다운 묘사 속에 평범하면서도 소극적인 저자의 감정 표출과 함께, 마을사람을 벗 삼아 속세를 떠나서도 자신의 길을 개척하며 자유롭게 즐기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貫雲石은 명성을 버리고 隱逸하여 張可久, 阿里西瑛, 楊朝英등과 술을 마시고 시를 주고받았다. [雙調·清江引] 제1수와 3수를 통해 살펴보도록 한다.

보잘 것 없는 명성 버리고 은거했으니 마음 즐겁고, 한 번의 웃음소리 흰

71) “ [村里逐鼓] 我向這水邊林下, 蓋一座竹籬茅舍。閑時節觀山玩水, 悶來和漁樵閑話。我將這綠柳栽, 黃菊種, 山林如畫。悶來時看翠山, 觀綠水, 指落花, 呀, 鎖住我這心猿意馬。 [元和令] 將柴門掩落霞, 明月向杖頭挂。我則見青山影里釣魚槎, 慢騰騰間瀟灑。悶來獨自對天涯, 蕩村醪飲興加。 [上馬嬌] 魚旋拿, 柴旋打。無事掩荆笆, 醉時節臥在葫蘆架。咱, 睡起時節旋去烹茶。 [游四門] 藥爐經卷作生涯, 學種邵平瓜。淵明賞菊在東籬下, 終日飲流霞。咱, 向爐內煉丹砂。 [胜葫蘆] 我則待散誕逍遙閑笑耍, 左右種桑麻, 閑看園林噪晚鴉。心無牽挂, 蹇驢閑跨, 游玩野人家。 [后庭花] 我將這嫩蔓菁帶葉煎, 細芋糕油內炸。白酒磁杯咽, 野花頭上插。興來時笑呷呷, 村醪飲罷。繞柴扉水一注, 近山村看落花, 是蓬萊天地家。 [青哥兒] 呀, 看一帶雲山, 雲山如畫, 端的是景物, 景物堪夸。剩下殘山向那答? 心無牽挂, 樹林之下, 柳瓢高挂。冷清清無是非誦南華。就里乾坤大。”

72) 趙義山 主編, 『元曲鑑賞辭典』, 北京: 商務印書館, 2012, 459쪽.

구름 너머로 사라지네. 마음 알아주는 벗 서너 명과 실컷 술을 마셔도 무슨 방해 있으랴. 술 취한 채 소매 휘날리며 춤추니 친지가 비좁을 뿐.<sup>73)</sup>

풍파를 피해 안락한 움집으로 들어가니, 이곳의 하늘과 땅은 넓기도 하구나. 깨어나면 취했다가 다시 깨어나고, 자리에 누웠다가 일어나 또 다시 누우니, 이렇게 한가롭고 여유로운 삶, 누가 나와 같을까? <sup>74)</sup>

安樂窩라는 공간은 밤낮 구분 없이 잠을 자고, 벗과 술 마시고 시를 주고받는 곳이며 외부의 간섭이나 심리적 부담이 없는 자유로운 곳으로, 근심걱정 없는 隱逸의 삶을 확인할 수 있다. [雙調·水仙子] 「田家」의 4곡에서는 전원 에 거한 뒤의 정취를 노래했다. 다음은 제1,2수이다.

푸른 숲속에 초가 두어 칸, 뜰 뒤로 시내 흐르고 문밖엔 산 있고, 복숭아와 개살구 꽃 끝없이 피었네. 봄날 경치 허무하게 지나갈까봐, 덧없는 인생에 반나절 한가함 얻었네. 이웃 노인 벗 삼아 초대하고, 집안 아이에게 술 따르게 하여, 낡은 질그릇 술병 비울 때까지 다 마시리라.<sup>75)</sup>

온 숲에 낙엽 어지러이 흩날리고, 가을 서리에 취한 비단 같은 나무 시들고, 푸른 이끼 조용히 쓸어내며 새겨진 시 바라보네. 술은 살짝 데워졌으나 돌술은 차갑고, 질그릇 잔 깊이 씻어 모든 근심걱정 씻어내네. 옷 풀어헤치고, 세상사 신경 쓰지 않으니, 낡은 질그릇 술병 비울 때까지 다 마시리라.<sup>76)</sup>

봄·가을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 농촌생활의 즐거움이 묘사되었다. 전원에서의 삶은 “배고픔 없고 추위걱정 없으니, 풍년의 기쁨 누리며 맘껏 마시고 얼굴에는 웃음 가득”<sup>77)</sup>하다. 농부는 장안에 가서 얻을 공명은 꿈도 꾸지 않

73) “棄微名去來心快哉，一笑白雲外。知音三五人，痛飲何妨礙。醉袍袖舞嫌天地窄。”

74) “避風波走入安樂窩，就里乾坤大。醒了醉還醒，臥了重還臥。似這般得清閑的誰似我？”

75) [雙調·水仙子] 「田家」“綠陰茅屋兩三間，院後溪流門外山，山桃野杏開無限。怕春光虛過眼，得浮生半日清閑。邀鄰翁爲伴，使家僮過盞，直喫的老瓦盆乾。”

76) [雙調·水仙子] 「田家」“滿林紅葉亂翩翩，醉盡秋霜錦樹殘，蒼苔靜拂題詩看。酒微溫石鼎寒，瓦杯深洗盡愁煩。衣寬解，事不關，直喫的老瓦盆乾。”

77) [雙調·水仙子] 「田家」“……可無飢不受寒，樂豐年暢飲開顏。……”

고, 다만 노비가 밭을 갈고 옷감을 짜며 자급자족하는 전원의 한가로운 생활에 만족한다. 술병에 가득한 술 또한 隱逸의 즐거움이니, “맑은 물과 푸른 산에 맘껏 자유롭게 거니네. 마음을 알아주는 몇 명의 벗 찾아, 마을에서 탁주 빚어 몇 잔 마시니, 낡은 질그릇 술병 비울 때까지 다 마시리라”<sup>78)</sup>고 노래한다. 봄 경치에 대한 소중함, 가을 풍경에 대한 찬미, 풍년에 대한 축하가 나타나고, 隱逸의 편안하고 즐거운 정취가 가득하다.

## 5. 나가며

元代의 민족차별정책과 오랜 기간 과거제도의 폐지는 인간의 자아실현과 인생의 가치를 사회적 관계에서 실현하려고 했던 한족 士人들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다. 따라서 한족 士인들이 자신의 능력을 펼치지 못한 것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표출하며 어쩔 수 없이 隱逸을 선택했다면, 소수민족 散曲 작가들은 한족 작가들과는 어느 정도 차이점을 보인다.

우선 不忽木, 貫雲石, 薛昂夫 등 소수민족 작가는 자발적으로 한족의 문화를 수용하고 한족 지식인과 교류하며, 학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散曲 창작에 뛰어난 실력을 보였고, 작가 개인의 의식을 작품에 표현했다.

元代 隱逸思想이 散曲 창작의 중심 사상 중 하나라고 한다면, 소수민족 작가들은 다양한 관직을 수행하면서 사회 전반의 부패, 관료사회의 추악함, 통치 집단의 갈등을 직접 경험했다. 그 과정에서 권신들의 질투를 받아 병을 핑계대고 관직을 사임하고 隱逸을 희망했다. 관료사회의 경험을 바탕으로 소수민족 작가들은 功名을 세우거나 名利를 쫓는 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절망적인 일인지 깨닫게 된다. 따라서 이들의 散曲에는 名利를 혐오하고 군주의 뜻을 받들고 싶지 않다는 과감한 자기 고백이 보인다.

뿐만 아니라 陶淵明과 같은 隱者는 소수민족 작가들의 동경의 대상이었고,

78) 「田家」“……任道遙綠水青山。尋幾個知心伴，釀村醪飲數碗，直喫的老瓦盆乾。”

이상적 삶의 실천으로서 이들은 隱逸을 선택하고 희망했다. 정치적 이상을 위해 때를 기다리는 구체적 행위로서의 隱逸이 아니라 관직에서의 피로감과 환멸이 자연스럽게 이들을 隱逸을 생각하고 실천하게 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소수민족 작가의 창작은 元 散曲의 주제 확장을 이끌었고, 元代라는 뚜렷한 시대적 특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 參考文獻

- 박한재·김형중·김병준·이근명·이준갑, 『아틀라스중국사』, 서울: 사계절, 2008.
- 오타기 마쓰오, 윤은숙·임대희, 『중국의 역사 대원제국』, 서울: 혜안, 2013.
- 최재목 역주, 『老子』, 서울: 을유문화사, 2006.
- 陳新會 撰, 『元西域人華化考』,臺北: 世界書局, 1962.
- 鄧紹基, 『元代文學史』,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91.
- 吳小如 主編, 劉玉才, 劉寧, 顧永新 編著, 『中國文化史綱要』,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7.
- 隋樹森, 『全元散曲』, 北京: 中華書局, 1981.
- [元] 陶宗儀 撰, 李夢生 校點, 『南村輟耕錄』,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12.
- 王忠林, 『元代散曲論叢』,臺北: 文津出版社, 2005.
- 蕭啓慶, 『九州四海風雅同: 元代多族士人圈的形成與發展』, 新北: 聯經, 2019.
- \_\_\_\_\_, 『元代的族群文化與科舉』, 新北: 聯經, 2020.
- 許嘉璐 主編, 『宋史』(『二十四史全譯』), 上海: 漢語大詞典出版社, 2004.
- \_\_\_\_\_, 『元史』(『二十四史全譯』), 上海: 漢語大詞典出版社, 2004.
- \_\_\_\_\_, 『史記』(『二十四史全譯』), 上海: 漢語大詞典出版社, 2004.
- \_\_\_\_\_, 『後漢書』(『二十四史全譯』), 上海: 漢語大詞典出版社, 2004.
- 楊鐮, 石曉奇, 樂睿, 『元曲家薛昂夫』, 烏魯木齊: 新疆人民出版社, 1992.
- 楊伯峻 譯注, 『論語譯注』, 北京: 中華書局, 2008.
- 黃錦鉉 譯注, 『新譯莊子讀本』,臺北: 三民書局, 2007.
- 袁行霈 主編, 『中國文學史』(第3卷), 北京: 高等教育出版社, 2010.
- 趙義山 主編, 『元曲鑑賞辭典』, 北京: 商務印書館, 2012.
- 張迎勝, 『元代回族文學家』, 北京: 人民出版社, 2004.
- 朱軍, 『元代理學與社會』, 成都: 巴蜀書社, 2022.
- [明] 朱權, 姚品文點校箋評, 洛地審訂, 『太和正音譜箋評』, 北京: 中華書局, 2011.
- [英] Shane McCausland, 賴星睿 譯, 『蒙古世紀』, 北京: 三聯書店, 2024.

- 柴琮, 「元散曲隱逸作品代表作家研究」, 華中師範大學 석사학위논문, 2009.
- 蔣義斌, 「『論語』隱處思想對現代社會的反思」, 『宗教哲學』第6卷第2期, 2000.
- 劉坎龍, 「論元代西域少數民族詩人散曲創作之價值」, 『新疆師範大學學報』第2期, 1991.
- 羅海燕, 「新中國成立以來的元代少數民族散曲研究」, 『大連民族大學學報』第6期, 2016.
- 溫斌, 「志心兩離不忽木, 西域儒行第一人」, 『中國文化研究』, 2013.
- 云峰, 「伯顏及其詩歌散曲創作論」, 『黑龍江民族叢刊』第4期, 2005.

## Abstract

### A Study on the reclusive ideology in Sanqu of Ethnic minorities in Yuan Dynasty

Kim, Young Mi

During the Yuan dynasty, due to the abolition and later restoration of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 system as well as unstable state governance, most Han Chinese literati lost their political standing. Except for a few, they were unable to enter officialdom or remained in minor posts. As a result, many chose reclusion in pursuit of political ideals, conforming to nature and waiting for the right time, or expressed their frustration over being talented but unrecognized.

In contrast, minority groups such as the Mongolian and the Semu people, though often holding higher official positions than the Han Chinese, also sought to express and practice a reclusive life. Ethnic Minorities Sanqu writers like BuHumu(不忽木), GuanYunshi(貫雲石), and XueAngfu(薛昂夫) voluntarily embraced Confucianism and absorbed the advanced culture of the Central Plains, while also promoting the excellence of their own ethnic traditions. Their reclusive ideology can be seen as both an escape and resistance rooted in fatigue and disillusionment with political life and officialdom, as well as a practice inspired by a longing for reclusion.

**Key words** : Yuan Dynasty, Sanqu, ethnic minorities, reclusive ideology, resistance, longing

투 고 일 : 2025. 4. 10. / 심 사 일 : 2025. 4. 15.~ 2025. 5. 15. / 게재확정일 : 2025. 5. 20.

